

## 보도

# 일부 학과 ‘물려주기 식’ 회장 선출 … 학생자치 위축의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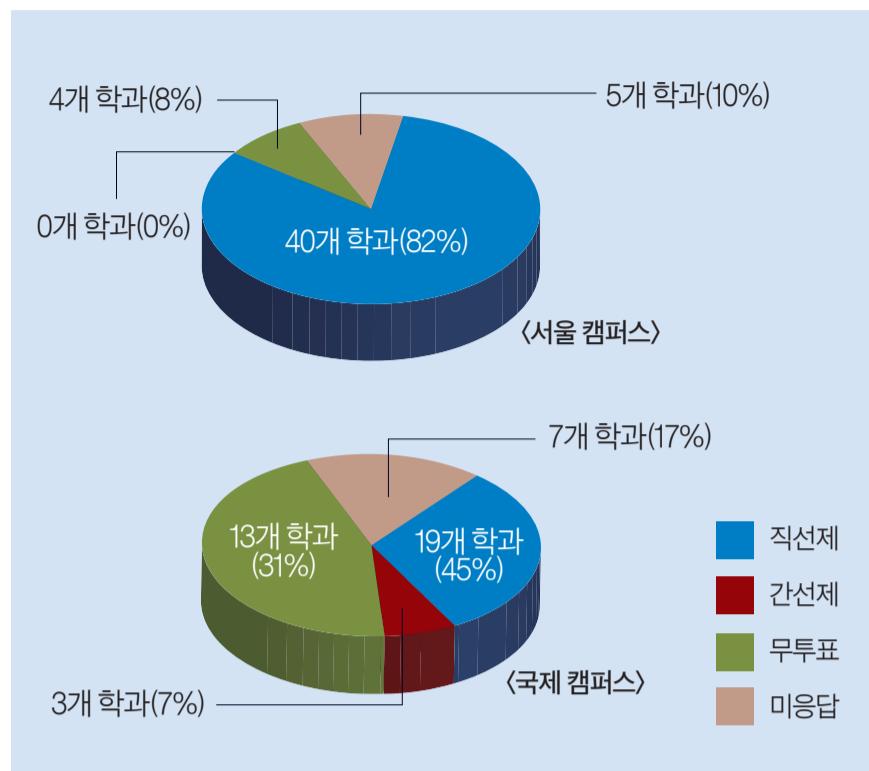
## 학과 학생회장 선출 문제

김은수 기자 eunsu1031@knu.ac.kr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nu.ac.kr

20여 개에 달하는 학과에서 학생회장 선출이 임의적인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는 문제제기가 학생 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과 학생회 측에선 ‘이전과는 달리 학생들이 학과 학생회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회장 후보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종학생회(총학) 회칙에는 학과 학생회장 선출에 대한 내용이 따로 언급돼있지 않지만, 국제캠퍼스(국제캠) 종학 회칙에는 학과 학생회장을 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제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지 않는 학과가 많은 탓에, 일부 학생들이 우리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 대표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향후 학생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 신문이 양 캠퍼스 학과 학생회장 선출 방식을 조사한 결과, 취재에 응답한 학과들 중 학생 구성원이 직접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는 학과는 서울캠 82%, 국제캠 45%에 불과했다. 서울캠 8%와 국제캠 31%의 학과는 직선제 대신 ‘물려주기 식’으로 학생회장을 선출했고, 국제캠 전자정 보대학 소속 학과들은 ‘동아리 위주’로 운영되는 학과 특성상 각 동아리장들과 전임



학생회만 투표하는 ‘간선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학생들은 투표를 거치지 않은 학과 내 대표 선출의 ‘신뢰성’ 및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지난 12월 22일 페이스북 페이지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는 ‘학년 대표가 투표를 거치지 않고 결정됐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서 작성자는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에 졸업작품 전을 준비하는 과 특성상, 3학년 대표의 역할이 중요해 늘 투표를 거쳐 왔다’며 ‘올해는 학년 대표를 선출할 시기가 되어 후보로 추천 받은 2명 중, 투표 없이 학생회 선배들의 추천만으로 한 명이 임의로 과대가 됐다’고 토로했다. 또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권민중(기계공학 2012) 군도 “과 학생회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 했다”며 “입학 후 단 한 번도 학생회장 후보를 모집하거나 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단과대학별, 학과별 세칙을 정해두지 않는 곳이 많아 단과대학 및 학과들은 대개 종학회칙을 따르게 된다. 그

런데 서울캠 종학생회 회칙에는 학생대표 선출에 관한 세칙이 마련돼 있지 않다. 단지 ‘각 과·전공·학부 학생회칙에 따라 자치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만 나타나 있어 자율적으로 과 학생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반면, 국제캠의 경우에는 종학회칙에 학과 학생회장 선출에 관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 국제캠 종학회칙 11장 111조 2항에 따르면 ‘과 학생회장은 과 학생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회칙에 따라 선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본 항의 예외규정으로 ‘선출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크게 부당하여 해당 회원 내에서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 한해 단과대학 학생회가 개입해 선출을 돋는다고 부연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캠 학과의 절반 이상이 직선제 선출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운용되는 ‘학과 학생회장의 임기’도 학과별로 제각각이다. 국제캠 회칙에는 ‘과 학생회장과 부과 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미선출시 임기는 차기 학생회장이 선출될 때까지이며 최대 기간은 다음해 3월 31일까지’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명시돼있다. 하지만 우리 신문의 취재 결과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 예컨대 학생회장의 개인 사정에 따라 임기가 변동되는 학과들이 존재했다. 심지어

## 2016 교원양성기관 평가 C등급 … 2018년부터 교직이수 인원 30% 감축

### 교직이수 선발인원 감축

류제원 기자 jennyoo95@knu.ac.kr

우리학교 교직이수 선발인원이 2018년부터 30% 감축된다. 교육부와 한국개발교육원에서 진행한 ‘2016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2016년 양 캠퍼스 통합 교직이수 선발인원 197명의 30%인 약 60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그러나 학과 당 평가영역별 구체적인

점수에 대해 교무과 교직팀 백지원 계장은 “교직이수자들의 임용고시 합격률이나 교수의 연구실적 등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작년 7월부터 12월 초까지 일반대학교 중 교육과와 교직과정이 설치된 107개교 242개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교원양성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관의 자기발전 노력을 유도하여 우수교원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1998년부터 교원

양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는 교원양성 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과정 양성되고 있는 교원양성 규모를 적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특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과 같이 교육의 질이 열악한 기관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2016년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특성화 4개 영역에 걸쳐 서면평가와 현장방문, 재학생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각 영역별 점

수는 학과단위 점수로 변환하여 산출하며, 이를 종합하여 학교의 평가등급이 결정된다.

평가등급은 각 평가지표 점수의 합에 따라 A, B, C, D, E등급으로 구분되며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교육부장관표창을 수여받고, B등급 기관은 현행유지 된다. C등급 이하부터는 각 등급에 따라 정원의 30%(C등급), 50%(D등급), 100%(폐지·E등급)에 대해 감원 조치를 받게 된다. 교직이수 과정이 설치된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학 중 B등급은 서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

대학교 등이 있으며 C등급은 우리 학교를 비롯해 국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숭실대학교 등이 있다. 이번 평가 결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55개 학과 중 A등급이 1곳, B등급이 16곳, C등급이 29곳, D등급이 9곳이다.

2018 교직이수 선발인원 변동에 대해 교직팀 백 계장은 “교육부에서 보내준 평가지표와 자격증 취득률, 임용고시 합격률 등을 종합해 학과별 변동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번주 내로 교육부에 변동 인원에 대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박자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 페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